

# 사회선택이론과 후생경제학에 대한 충실한 입문서

아마티아 센의 《불평등의 재검토》와 《윤리학과 경제학》

김완진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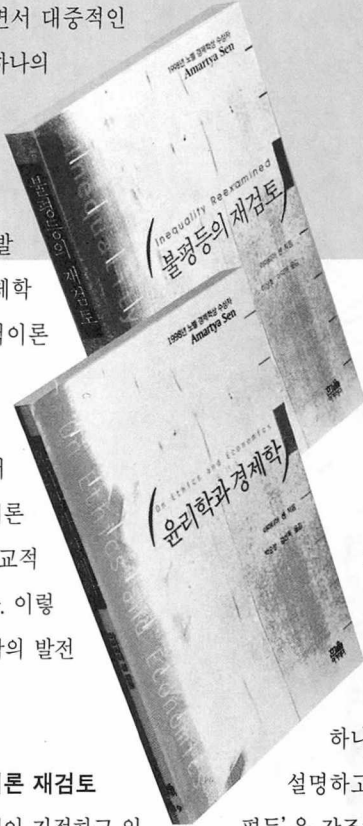
경제학계 안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마티아 센의 저작이 두 권씩이나 거의 동시에 번역된 것은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센이 1998년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면서 대중적인 지명도를 얻게 된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센은 후생경제학 중에서도 특히 사회선택이론 분야의 기초를 닦고 발전시킨 공적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사회선택이론은 경제이론의 한 분야지만, 경제학보다는 정치학·철학 등의 분야에 더 많이 응용되기 때문에 이론경제학자들 이외에는 비교적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사정은 물론 경제학의 발전방향과도 관계가 있다.

### 평등의 측면에서 기존 이론 재검토

《윤리학과 경제학》에서 센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학은 두 가지 전통 위에서 있다. 하나는 윤리학적인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공학적인 전통이다. 그런데 현대경제학에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학적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 이래 윤리학적 문제의식이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윤리학과 경제학》의 중심주제는 바로 이런 현실인식 아래 경제학과 윤리학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검토해 경제학에서 윤리학적 전통을 복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 두 책은 모두 강연내용을 다듬어 출간했다. 《불평등의 재검토》는 1988년 예일대학에서 행한 사이먼 쿠즈네츠 기념강연을, 《윤리학과 경제학》은 1986년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립캠퍼스에서 행한 로이어 강연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따라서 전문용어나 수식을 쓰지 않고 평이한 언어로 자신의 연구분야 전반을 요약 설명하기 때문에 두 책은 이 분야의 훌륭한 입문서다.



《불평등의 재검토》  
아마티아 센 지음/이상호·이덕재 옮김  
한울/A5신/344면/13,000원

《윤리학과 경제학》  
아마티아 센 지음/박순성·강신욱 옮김  
한울/A5신/174면/8000원

먼저 《불평등의 재검토》를 살펴보자. 이 책에서 센은 기존의 규범적 이론, 이를테면 공리주의부터 롤즈의 정의론과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어떤 하나의 측면에서 평등을 주장한다고 설명하고, 결국 다양한 이론들은 '무엇의 평등'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공리주의는 평등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효용을 똑같이 계산에 넣는다는 점에서 평등을 고려하고, 자유지상주의는 자유와 권리의 평등한 분배에 관심을 둔다. 모든 규범이론을 무엇의 평등인가라는 관점에서 포괄하고 분류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문체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센의 대가다운 방향 제시다.

### '기능' 과 '능력' 을 대안으로 제시

이 책이 제시하는 센의 또 하나의 업적은, 기존의 공리주의적인 후생경제학이 쾌락이나 만족으로서의 효용개념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유나 권리, 인간다운 삶과 같은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효용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기능'(functionings)과 '능력'(capability)을 제시한 점이다. '기능'과 '능력'은 사실 원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한 번역어지만 더 좋은 대

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기능'이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측면, 예를 들면 적당한 영양상태를 유지하는 것, 유아사망률을 낮추는 것, 인간적인 품위를 유지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능력'이란 한 사람이 맡은 가능한 기능에 대한 현실상태들의 포괄적인 전체를 말한다. '기능' 혹은 '능력'이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삶의 척도로서 효용보다 포괄적이고 유용한 개념이므로 '기능' 혹은 '능력'의 평등분배가 바람직한 사회목표가 돼야 한다는 센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며 앞으로 후생경제학의 연구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물론 아직 완성된 이론이 아니므로 엄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능력의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해답이 없다는 점은 지적돼야 한다.

《윤리학과 경제학》의 중심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으므로 한가지만 추가한다면, 이 책을 통해서 센은 경제학에서 윤리학적인 전통이 어떻게 그 지위를 잃게 됐으며 윤리학과 경제학은 어떻게 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설득력 있게 설파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두 책의 출간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선택이론과 후생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활발한 연구성과를 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끝으로 번역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번역본만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원본을 참조해야 한다면, 번역의 가치는 반감된다. 좋은 번역서들이 출간되기 위해서는, 먼저 번역작업을 창작과 같은 업적으로 인정해주는 학문풍토가 조성돼야 함은 물론 번역자에게도 높은 학문적 성실성이 요청된다.●